

기독교 전통에 나타난 교회와 세속의 이원론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비판: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을 중심으로

신경수 (성결대)

I. 들어가는 말

II. 플라톤의 이원론 개념과 '실재'의 우위성

1. 이원론에 나타난 실재의 우위성과 이데아
2. 영혼의 본성과 덕의 관련성

III. 플라톤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와 기독교 전통의 이원론

1.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영지주의 전통
2. 영지주의 이후의 중세에 나타난 이원론

IV. 기독교 전통에 나타난 이원론: 교회와 세상

1. 하나님의 보편적 은총과 자연
2. 한국교회의 이원론적 전통에 대한 비판과 기독교 윤리적 성찰

V. 나가는 말: 이원론을 넘어서

DOI: <http://dx.doi.org/10.21050/CSE.2016.35.08>

• ABSTRACT •

Christian ethical Critique on Dualism of Church and Secular World in Christian Tradition: Focusing on the Influence on Plato's Dualism

Shin, Kyung Soo (Sungkyul University)

The notion of "Idea" provided a function to make all forms of the earth in Plato. Plato's Idea means superiority over invisible beings can be found in his "soul theory," which divides two categories such as immortality and mortality. The former is a natural principle to move physical body, while the latter is a human dimension of it. He argues that the immortality part has a ability more than reason, whereas the mortality has an impact on emotion or desire sphere. He also insists that material thing is bad, and spiritual one is good. Such a dualism affects onto St. Augustinus to believe two worlds respectively. To him, unlike the material world, non-material world was a interim space where is common ground to perceive God and invisible things alike. Boethius stands also on the line of same argument. Plato's theory with reasonable ground in its legitimacy has contributed in making a great trend of thought, and it also serve as a meaningful apparatus to explain that the heaven is an ultimate reality and the earth is its derived reality accordingly, that is, the visible world of creation seems to be a realm of the evil; whereas the invisible "Idea" does the Supreme spiritual area with full of God's grace and perfect morality. Dualistic comparison between form and material gave a wrong clue to distinguish body and soul and/or church and secular world as well. Such a dualism make a crossroad in which soul and church upgraded to sacred space, whereas body and world downgraded into negative and lower realm. Upon this wrong application, immoral criterion of ethics became rampant not only in mundane life but in the church as well.

Key words: Plato, Dualism, Material, Form, Christian Ethic, Church, Secular World

I. 들어가는 말

지난 기독교 전통에서 가르친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거룩한 곳과 세속적인 곳으로 구분되는 이원론 사상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사상의 출발은 고대 철학의 이원론, 즉 플라톤 형이상학에서 주장하는 실재의 우위성에서 나타난다. 플라톤은 이상주의자로서 가시적인 세계 속의 운동은 결국 보이지 않는 실재에 의해 움직여질 뿐만 아니라 모든 가시계가 보이지 않는 실재로 귀속된다고 보았다. 플라톤에서 시작된 이데아(Idea)의 형이상학적 가치관과 그것의 우선성은 후에 영지주의의 이원론을 거쳐 아우구스티누스가 세상을 이분법적 구도, 즉 '하나님의 도성(Civitas Dei)'과 '지상의 도성(Civitas terrena)'으로 설명하는 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구분은 '성(聖)'과 '속(俗)'의 구분으로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현대에 와서 교회론과 성직자들의 설교에 '하나님의 나라'와 '세속', 혹은 '천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이분법적 구도로 반영된다.

기독교의 이원론은 플라톤에게 영향을 받아 창조 세계를 두 개의 분리된 범주로 구분하여 교회는 거룩한 것, 세상은 속된 것으로 나누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기독교 전통은 앞서 언급한 이원론적 전통에 입각하여 교회와 세속이라는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 심지어 영혼과 육체까지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바라보며 철저히 하위 차원과 구분되는 상위차원의 것들을 양산해내려고 노력해왔다. 이러한 교회와 세속의 이분법은 오늘날 기독교 전통에서도 지배적인 사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는 성직자들의 가르침에서 자주 등장하고, 은연중에 성도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예를 들어, 한국기독교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속한 직업 영역을 거룩한 창조

물의 일부로서 일구어 나가야할 거룩한 문화 영역으로 보지 못하고 단지 먹고 살기 위한 세속적인 영역으로 치부하는 것은 은연중에 이원론적 세계관을 갖게 된 결과이다.

이러한 이원론은 비기독교적인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창조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다. 성경적 세계관은 본래 악한 영역을 인정하는 이원론적 창조를 부정하기 때문이다. 창세기부터 가장 강조되는 것은 온 우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이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그것이 본래 그분의 성전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대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본래 악한 영역이 있었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에 대한 성도의 책임을 회피하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직업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인정하기보다는 생존을 위해 비윤리적 행위를 하는 것이나, 목회자들이 사적인 영역에서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들은 모두 이러한 이원론의 영향이 크다. 이원론은 단지 형이상학적 철학과 신학의 영역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지금, 여기, 한국 교회의 여러 윤리적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인 쟁점이 된다.

물론 기존의 연구들에서 플라톤의 이데아를 비롯해서 이원론 자체에 대해 많이 다루어왔다. 또한 이원론이 영지주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과 관련해서 많은 연구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이 논문과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논한다면 플라톤의 이원론이 영지주의를 거쳐 아우구스티누스까지 영향을 미친 시대적 흐름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현대 한국기독교에 나타난 이원론까지 논한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한국기독교의 이원론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성찰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한국기독교의 가르침에 나타난 이원론은 심각한 윤리적 문제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논의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플라톤의 이원론으로부터 현대 교회의 영향까지 살펴볼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플라톤의 이원론을 시작으로 2세기 영지주의의 전통으로 이어진 이원론을 살펴보고, 아우구스티누스의 사상까지 검토할 것이다. 이원론의 이론적 배경은 후에 기독교 전통에 나타난 이원론의 단초를 제공하기 때문에 논의과정이 필요하다. 그 이후, 이들의 배경사를 거치면서 기독교 전통에 나타난 이원론, 즉 교회와 사회, 교회와 세속으로 구분하는 이원론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오늘날 현대 기독교 전통에 나타난 이원론의 문제점 또한 지적할 것이다. 특히, 한국사회에서 기독교 이원론은 오히려 차원을 넘어 심각한 윤리적 문제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교회의 거룩함과 사회의 세속화를 구분함으로써 결국 사회 속에 존재해야 하는 교회를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는 사회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 공동체이지만 한국 기독교는 세상(세속)을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의 영역에서 배제시키고 있다. 이는 과거 기독교 전통에서 내려오는 이원론 전통이 기독교 공동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글은 기독교 전통에 뿌리박힌 이원론을 비판하고 이원론을 극복하기 위한 현대 신학의 과제를 검토할 것이다.

II. 플라톤의 이원론 개념과 ‘실재’의 우위성

1. 이원론에 나타난 실재의 우위성과 이데아

도덕적 실재론은 옳은 행위를 하는 원천이 보이지 않는 ‘옳음의 실재’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입장이다. 이는 달리 말하자면, 도덕적 속성들이 도덕적 실재에서 기인한다는 원리이며 모든 개별적인 도덕적 행위가 결국은 도덕 실재론(도덕 형이상학)¹⁾에서 출발하여 각각의 행위에 영향

1) 도덕형이상학을 체계화한 사상가는 칸트(I Kant)이다. 그는 『도덕형이상학』에서 ‘옳고 그름’의 행위는 선험적이며, 동시에 선험적 형태의 도덕 원리가 인간의 행위의 옳고

을 미친다는 것이다.²⁾ 도덕적 실재론은 후에 ‘도덕적 절대주의(moral absolutism)’로 이어진다. 도덕적 절대주의는 옳고 그름의 행위가 그 사회의 문화나 관습, 인간의 생활양식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옳은 행위로서 수반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³⁾ 이런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실재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실재론의 뿌리는 플라톤(Platon, BC. 427-347)에서 찾을 수 있다. 플라톤은 ‘실재론자’이면서 동시에 이상주의자이다. 그는 많은 서양의 사상가들 가운데 ‘이상의 실재성’을 가장 강조한 인물 중에 하나였다. 그는 현실 세계에서의 이상을 발견하는 것이 아닌 인간이 도달하려고 애쓰는 이상으로서 현실적인 것을 측정하는 기준의 이상을 포함한다.⁴⁾ 플라톤에게 있어서 이러한 이상은 현실적인 것들보다 더욱 큰 실재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상은 영원불변하는 것이지만 반면 현실적인 것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즉 존재하고 사라지기를 거듭하는 것이다. 그는 하나의 예를 들어 일시적인 것 내지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보여준다. 사회 정의는 한 동안 존재했다가 사라지고 마는 일시적인 것, 즉 제도나 관습처럼 영원하지 않고 사라지는 것이다. 하지만 플라톤은 이러한 개별적이고 특수한 것들, 혹은 현실적이고 순간적인 세계에서 분리되는 ‘불변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것을 ‘형상’이라고 불렀다. 이는 감각경험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의 출발이라고 보았다. 책제목에서 보듯이 『도덕형이상학』은 도덕의 실재 내지는 초월적인 원리가 있음을 암시하는 의미에서 칸트는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칸트는 행위의 결과에 초점을 두지 않고, 행위의 동기를 중요시 하게 된다. 그에게서 도덕적 삶은 경향성에 이끌리는 것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 인간의 경향성과 무관한 도덕적 행위를 강조하였다: L. Arrington Robert, *Western Ethics: An Historical Introduction*(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s, 1998), 264 참고.

2) Paul Bloomfield, *Moral Reality*(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27-8.

3) Lawrence M. Hinman, *Ethics: A Pluralistic Approach to Moral Theory*(Wadsworth: Thomson 2003), 53.

4) L. Arrington Robert, *Western Ethics: An Historical Introduction*, 41-2.

오직 '이성'을 통해서 인식되는 것이다. 이러한 형상은 사물의 본질이며 더 이상의 더함 없이 완전하고 완벽한 실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한다. 그에게서 형상은 물리적 우주의 전체 모형으로서도 설명되고, '영원한 생명체(eternal living Being)', 또는 완전한 생명체로 언급되며 자신 속에 모든 가지적(可知的) 생명체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플라톤은 형상 자체가 생명체이고 영혼을 가진 존재, 살아있는 존재라고 해석하고 있다.⁵⁾ 그는 형상 곧 완벽한 실재를 통해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 가운데 '선의 형상'⁶⁾을 찾고 있었다. 선의 형상은 세계 속에서 발견되는 것들과 선 자체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빛이 다른 사물을 보이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⁷⁾

그리고 그는 동굴의 비유에서 실재의 우위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동굴에 갇힌 죄수들은 벽면에 비치는 그림자 이외의 다른 것은 어떤 것도 보지 못한다. 그림자와 같은 체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죄수들은 오직 그림자가 진정한 사람과 동물들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몇몇 죄수들만이 고개를 돌려 실제로 타고 있는 불을 비롯해 여러 가지 상(象)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된다면 혁명적인 일이 일어날 것이다. 플라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수들은 제한된 자신의 세계에 길들여져 있어서 처음에는 고개를 돌리지 않으며 저항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런데 만약 어느 누구 하나가 고개를 돌려 불을 보는 순간 어둠에 갇혀 살던 습관으로 밝은 빛으로 인해 아무것도 볼 수 없었

5) G. C. Field, *The philosophy of Plato*, 양문흠 역, 『플라톤의 철학』(서울: 서광사, 1986), 131-2.

6) 플라톤은 "인식 없는 인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인식된 것을 때로는 선(goodness)으로 때로는 아름다운 것(beauty)으로 표현하는데 이를 선의 이데아, 아름다움의 이데아로 표현한다. 그에게서 인식의 최종 목적지는 '한 가지 종류로 귀착되는데 바로 실재이다: Karl Albert, *Über Platons begriff der philosophie*, 임성철 역, 『플라톤의 철학개념』(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 85 참고.

7) L. Arrington Robert, *Western Ethics: An Historical Introduction*, 41-2.

으나 차츰 시력이 회복되는 순간 벽에 비친 그림자가 아닌 또 다른 실재성, 아니 더욱 원형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⁸⁾

이처럼 플라톤은 보이는 실재가 아닌 보이지 않는 ‘보다 더 큰 실재’⁹⁾ 내지는 원형에 가까운 실재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가 제시한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바로 ‘이デア(idea)’의 세계를 지향한다. 이デア는 사물밖에 존재하며 사물 이전에 그리고 진짜로 존재하는 실재를 말한다. 이는 사물이든 행위이든 속성이든 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고유한 본질이 존재하는데, 이 본질(우시아, *ousia*)은 『파이돈』에 와서 구체적으로 언급된다. 이デア(idea)¹⁰⁾는 감각적인 형태로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과 대비시켜 이성을 통해서만 인식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플라톤이 이デア를 감각적 사물과 대조하여 감각적 사물보다 존재론적으로 높게 평가한다는 데 있다.¹¹⁾ 그는 감각적 사물이 철학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개별 사물이 이데아에 참여함으로써 규정된다고 보았다. 개별 사물은 “그때그때마다 고유하게 나타나는 물질”로 보고, 이는 이데아에 참여할 뿐, 개별사물이 존재하고 ‘그렇게 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이데아가 도입된다고 보았다.¹²⁾

8) 위의 책, 68-70.

9) 플라톤은 ‘보다 더 큰 실재’에 대해 언급하면서 최고의 실재를 추구하면서 ‘완벽한 실재(perfect real)’를 찾는 심의를 기울였다. 실재적인 것(real)-보다 더 실재적인 것(more real)-완벽한 실재(perfect real)의 정도(degree)를 구분하여 최고의 실재를 추구하고 그것이 형상 곧 최고의 실재로서의 이デア를 찾게 되었다: Gregory Vlastos, *Platonic Studies*(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60-1 참고.

10) 플라톤에게서 이デア는 개별적인 것들(the individual things)로부터 분리되고 떨어져 있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았다. 개별적인 것들로부터 따로 떨어져 있는 이デア는 물리적 세계(physical world)와 형상의 세계(the world of Form) 사이에서 구분되어진 형태로 설명되어 진다고 보았다: Richard Norman, *The Moral Philosophers*(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31 참고.

11) Joachim Schulz, *Das problem der materie in platon*, 이경직 역, 『플라톤의 물질 문제』(서울: 서광사, 2000), 32.

12) 위의 책, 34.

그리고 플라톤은 이데아를 설명할 때, ‘미의 이데아¹³⁾’를 예로 든다. 아름다움이란 단어가 나타내는 바로 그 특성은 “어떤 것이 아름답기 위해서 가져야 할, 아름다움과는 다른 특성 또는 일련의 특성들이 무엇인지”를 뜻할 수도 있고 ‘아름다움 그 자체’를 표현할 때 아름다움의 이데아를 사용한다. 아름다움의 이데아는 ‘보는 즐거움들을 아름답게 만드는 동일한 것이고, 이 두 가지 모두를 만족할 수 있는 것이자 동시에 각각에 따로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¹⁴⁾ 아름다움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 그러나 어떤 대상을 아름답다고 인식하기 위해서는 ‘아름다움 그 자체’가 이미 존재해야 하고 그 아름다움 그 자체가 각각의 개별대상자들에게 아름다움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플라톤이 말하는 이데아는 ‘인식 불가능성 (unknowableness)’의 형태를 지니고 있고 ‘최고의 가치 (supreme value)’를 가진 것으로 설명된다. 그는 ‘최고’의 가치를 이데아에 부여함으로써 가치의 차별 내지는 등급으로 환원하는 구조를 제시한다.¹⁵⁾ 이는 이데아 혹은 가시계에서는 찾을 수 없는 지고의 존재로서 이데아 또한 이원론적 구조 속에서 설명되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

끝으로 이데아는 도덕적인 선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앞서 실재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도덕적 실재론은 ‘선 그 자체’를 인정하는 윤리설이다. 모든 개별적 행위들의 옳고 그름의 판단이 도덕적 실재론에서부터 시작한다. 어떤 행위의 옳고 그름은 그 사회의 기준이나 전통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상대주의 입장에서 보면, 옳고 그름은 절대적인 모습으로 존재하지 않고 상황이나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도덕적 실재론에 나타난 ‘선의 실재’는 어디서든 항상 존재하며 그 선의 실재

13) 『국가』, 517C.

14) W. D. Ross, *Plato's theory of ideas*, 김진성 역, 『플라톤의 이데아론』(서울: 누넌, 2011), 26-7.

15) Nicholai Hartmann, *Moral Value*(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 2004), 66-7.

가 모든 도덕과 옳은 행위의 근원으로 설명된다. 그래서 도덕적 실재론은 도덕 형이상학이라고도 불리는데, 바로 플라톤의 형이상학에 나타난 이데아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2. 영혼의 본성과 덕의 관련성

앞서 플라톤의 실재론과 이데아론을 본 바대로, 실재는 가시적인 현상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상위에 놓여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는 형이상학적인 가치에서 비롯되었고, 그가 제시한 이데아는 모든 만물의 형상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였다. 플라톤에게서 이데아, 곧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우월성은 그의 영혼론에서도 드러난다. 플라톤의 영혼론은 후에 영혼의 우월성 내지는 정신적 영역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영지주의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플라톤의 영혼론 또한 기독교 이원론을 검토하기 위해서 반드시 다루어야 할 부분이다.

플라톤은 영혼에 대해 단순한 추상적 실재를 넘어 현실과의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설명한다. 소크라테스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도덕적인 존재, 그리고 영혼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누구보다 확신한 인물이었다. 그는 영혼 개념에서 유물론적 성격을 벗어던지고,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는 이분법적 사고, 즉 물질과 대비되는 영혼 개념을 명확하게 제시한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진정한 본성은 영혼이라는 것을 강조했다.¹⁶⁾ 이러한 영향을 받은 플라톤에게서 영혼은 ‘육체의 감옥’으로 표현된다. 그는 영혼을 가사적(可死的)인 것과 불사의 부분으로 나누는데 가사적인 것은 신체를 움직이게 하는 것으로서 자연적 원리로, 그리고 불사의 부분은 인간의 고유한 차원으로 설명한다. 그래서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될 경우, 가사적인 부분은 신체와 함께 죽고 불사의 부분만 남게 되는 것이다. 그는

16) 이정우, 『영혼론 입문』(서울: 도서출판 살림, 2003), 15-6.

영혼이 영원한 존재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영혼불멸설’을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영혼은 하나의 ‘형상’이다. 그리고 그는 영혼의 능력들에 관해 설명하면서 불사의 부분은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가사의 부분은 감정과 욕망을 담당한다고 둘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한다.¹⁷⁾

플라톤에게서 영혼은 정의와도 연결된다. 자신의 영혼이 정의를 드러내는 사람은 영혼을 구성하는 요소들 사이에 서로 상충이 생기지 않는데, 각 구성 요소들이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자신에게 정작 요청되는 바를 충족시키는 것은 개인이다. 그러한 개인의 영혼은 건강한 영혼으로 불린다. 그는 건강한 영혼¹⁸⁾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충족시키며 스스로와 갈등을 빚지 않고 항상 균형 있는 형태로 유지된다고 보았다.¹⁹⁾ 대신 정의롭지 못한 영혼은 자신과 충돌을 일으키고,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이러한 영혼은 욕구불만의 상태에 빠지게 되고, 충돌이 일어날 경우, 분노와 고통의 상태로 이어진다. 그는 건강한 영혼과 대조적인 정의롭지 못한 영혼은 덜 행복하게 될 것이고 비참하게 된다고 보았다.²⁰⁾ 플라톤은 영혼이 추상적인 실재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형태에서 행복과 불행으로 다시금 반영되는 것으로 설명한다. 그에게서 영혼은 기능을 가진 존재이다.

플라톤은 영혼²¹⁾의 본성에 대하여 ‘아름다움 모습’을 넘어 ‘신적인’ 대상으로 설명하고 있다.²²⁾ 그는 이런 신적인 본성이 바로 ‘자기 원인(causa

17) 위의 책, 21-2

18) 『국가론』, 444b.

19) L. Arrington Robert, *Western Ethics: An Historical Introduction*, 54-5.

20) 위의 책, 54-5.

21) 플라톤은 영혼을 욕구적인 부분(appetitive part)과 이성적인 부분(rational part)으로 나눈다: Terence Irwin, *Plato's Ethics*(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203 참고.

22) Thomas Alexander Szlezak, *Platon lesen*, 임성철 역, 『플라톤 읽기』(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110.

sui)'에 있다고 강조하고, 신의 본성은 모든 사물의 최상의 작용인으로서 모든 사물을 존재 또는 실존으로 산출할 수 있고 그것이 원하는 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환원시킬 수 있다고 본다.²³⁾ 특히 윤리학에서 실재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타당한 도덕적 원리가 존재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이론이다. 로스(W. Ross)는 고유하고 객관적 특질을 나타내는 말로 어떤 것으로도 옳길 수 없는 궁극적인 것으로서 모든 의무나 윤리적 덕목이 '하나'인 원리에 귀착한다고 보고, 가치실재론을 주장한 바 있다.²⁴⁾

플라톤에게서 가치실재론은 중요한 요소로 발견된다. 그가 제시한 이데아 곧 세상의 궁극적이고 초월적인 원형인 이데아의 세계에서 찾을 수 있는 실재는 모든 가시적인 존재와 현실 세계에서 앞서 있을 뿐만 아니라 실재에 의해서만 이해된다. 그 실재는 시대와 장소를 떠나 오직 그것에 의해서만 파악되고 심지어 도덕적 원리까지도 실재를 통한 선(goodness)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의 궁극적인 선은 '선의 이데아'로 귀착되고 동시에 선의 이데아에서만 최고로 완전한 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궁극적으로 가시적인 세계의 인식은 이데아 곧 형상으로서의 이해만이 진정한 인식의 방법이라고 제시하고 있다.²⁵⁾ 그에게서 윤리적 행위나 선행은 바로 실재인 선의 이데아에서 비롯되었고, 인간이 행하는 윤리적 행위의 출발 또한 '선의 이데아'인 셈이다. 이로 인해 인간의 현상계 내지는 가시적인 세계와 삶의 형식들은 결국 궁극적인 실재의 우위성 아래 놓여 있으며 이러한 플라톤의 사상은 결국 이원론의 고착 내지는 후세대

23) John Alexander Stewart, *Plato's doctrine of ideas*, 양태범 역, 『미적경험과 플라톤의 이데아론』(서울: 누멘, 2011), 89-90.

24) 김태길, 『윤리학』(서울: 박영사, 2004), 170-1.

25) Richard Kraut, *The Cambridge Companion to Plato*(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280-1.

에 이원론을 계승하는 데 충분한 입지를 마련하게 된다.

III. 플라톤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와 기독교 전통의 이원론

1. 영의 세계와 물질의 세계: 영지주의 전통

앞서 살펴본 것처럼 플라톤의 이원론은 영의 세계와 물질세계를 구분한 후, 가시적인 물질세계는 소멸되는 존재로서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가 주장한 이원론에서 두드러진 특징은 영적 세계의 우월성을 주장하고 물질세계는 저급한 세계로 구분하는 데 있다.

이런 플라톤의 이원론은 2세기에 들어서면서 다양한 영지주의(Gnosticism) 체계 안에서 더욱 발전되었다. 영지주의자들의 이분법은 정경에 드러난 그리스도교의 보편성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난다. 영지주의가 태동하던 시기인 1-2세기에는 아직 그리스도교가 성장하는 중에 있었으며 통일된 형태로 정비되기 이전이었다. 그리스도교가 팔레스타인의 경계를 넘어 헬레니즘 세계 전체, 곧 그리스·로마 문화의 정치가 지배하는 로마 제국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과 어긋나는 가르침이 속속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지주의이다. 영지주의는 단순한 지식²⁶⁾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적 지식 혹은 깨달음을 통해 모든 질문에 답을 얻고자 했다. 여기서 ‘지식을 얻은 사람’이라는 뜻의 영지주의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존재와 본성의 신비에 도달하기 위해 영적 깨달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물론 그들에게도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26) 영지주의자(gnostic)와 영지주의(gnosticism)라는 말은 그리스어 그노시스(gnosis)에서 유래했으며 보통 지식(knowledge)로 번역된다: Stephan A. Hoeller, *Gnosticism: new light on the ancient tradition of inner knowing*, 이재길 역, 『이것이 영지주의다』 (서울: 산티출판사, 2006), 18 참고.

선의 원천이기는 하지만 그들이 추구했던 지식은 물질계 자체가 악하기에 인간의 삶이 허무하다는 주장으로 흐르며 정통 그리스도교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27)

영지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원론을 펼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는 원리로 작용한다. 그들에 따르면 선한 영적인 존재가 악하고 추한 육적인 존재로 올 수 없다. 따라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육체)으로 올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하며, 마찬가지로 육으로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영으로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처럼 이원론을 따르다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을 부정하게 된다. 영이신 하나님이 육으로 올 수 없다는 주장은 이분법 구도에서 나온 설명의 한계였다. 이러한 영지주의 사상은 후에 마니교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영지주의 이후의 중세에 나타난 이원론

마니(Mani, 210-276)에 의해 창시된 마니교(Manichaeism)는 이원론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는다. 마니는 처음부터 빛과 어둠의 왕국이 불안한 평화 속에서 공존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빛은 어둠의 존재와 투쟁하지 않으며, 어둠과 함께 존재하는데 만족한 상태에 있었다고 한다. 여기서 영지주의의 이원론과 동일한 설명이 반복되는데, 바로 지고의 신으로부터 신성한 빛이 방출되고 그 빛의 일부가 어둠과 혼돈, 악이라는 저급한 세계로 떨어진다고 설명한다. 빛이 그곳에서 붙잡혀 자신과 조화될 수 없고, 심지어 적대적이기까지 한 물질과 혼합된다고 보았다.²⁸⁾ 여

27) 송혜경, 『영지주의자들의 성서』(서울: 한남성서연구소, 2014), 25-6.

28) Stephan A. Hoeller, *Gnosticism : new light on the ancient tradition of inner knowing*, 183-4.

기서 빛과 어두움의 이원론적 대비가 시작된다.

마니교가 제시하는 교리에 따르면, 우주 안에는 빛이나 선의 원리의 측면과 어둠이나 악의 원리의 측면이라는 큰 두 개의 근본원리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 두 원리는 모두 영원하며 서로 투쟁관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 투쟁은 결국 영혼과 육체의 투쟁으로 인간 삶에 투영된다.²⁹⁾

이러한 마니교의 이분법적 이론은 후에 아우구스티누스(Aurelius Augustinus, 354-430)에게까지 영향을 끼친다. 신플라톤주의의 사상에 매료된 아우구스티누스는 물질세계와 철저히 떨어져 있는 비물질 세계가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인간이 비물질적인 세계와 신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적 감각을 소유하고 있다는 개념을 발전시킨다. 게다가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로티노스에게서 악은 그 자체로 실재가 아니라 단지 소극적인 의미에서 결핍, 즉 선의 부재일뿐이라는 개념을 빌린다. 그는 신플라톤주의를 통해 모든 활동과 만물이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³⁰⁾

이후 아우구스티누스는 감각적 지식이 최하급의 단계라고 생각하고 이 지식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어떤 사람에게는 달게 느껴지는 것들이 다른 사람에게는 쓰게 느껴지고 차고 더운 것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하면서 감각세계에 대한 현상을 저급하게 다루게 된다. 그는 경험계에서 관찰되는 인간의 인식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변하고 영원하지 않는 가시계에 존재하는 형태를 저급하게 여긴다.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가 플라톤에게 영향 받은 이원론 사상은 영혼과

29) Samuel Enoch Stumpf · James Fieser, *Socrates to Sartre and beyond : a history of philosophy*, 이광래 역,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서울: 열린책들, 2011), 202-3.

30) 위의 책, 203.

육체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의 결합체다. 플라톤은 육체를 ‘영혼의 감옥’이라고 말했다. 아우구스티누스 또한 인간이 알고 있는 지식 체계는 영혼의 행위이지 지식을 기억하는 육체의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대상을 인식하고 어떤 상을 떠올리는 것은 영혼이라고 말한다.³¹⁾ 이처럼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 경험, 곧 인간 세계에서의 존재에 대해 저급하게 다루고, 심지어 우리가 인식하는 것조차도 영의 행위로 간주하였다. 그의 이러한 논의는 후에 기독교 전통으로 이어지기 시작한다. 기독교 전통은 플라톤이 주장한 실재의 우위성을 수용하여 결국에는 교회와 세속의 이분법적인 구도까지 이어지게 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지상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³²⁾ 두 개념이 공동체를 지칭한다는 점이다. 그는 각자 두 도성을 대비시키고 각각의 특성을 대조적인 내용으로 다루는 식으로 로마와 기독교를 대비시키고 있다. 밀뱅크(John Milbank)에 의하면, 아우구스티누스의 지상의 도성 개념은 근본적으로 죄악에 가득 차있는 곳이며 지배의 구조에 사로잡혀 있는 곳으로 해석함으로써 이원론적 성격이 다분해 보인다고 지적한다.³³⁾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있어 하나님의 도성과 지상의 도성은 서로 대적가운데 존재하는데, 하나는 하늘의 존재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 죄의 존재이다. 물론 그가 이처럼 두 도성에 관한 이론을 전개한 이유는 가치의 영원한 기준이 존재한다는 점을 깨우치게 하고 일시적이며 가변적인 세계의 가치관을 절대시하려는 위험에서 벗어나려는 시도에 있다.³⁴⁾

31) 위의 책, 208.

32) 아우구스티누스가 본 하나님의 도성(city of God)에는 윤리적 판단은 필요 없다. 그곳은 악이 존재하지 않고 오직 선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성은 인간이 사는 세상과 구별되는 곳으로 설명한다: Mark Vessey, *A Companion to Augustine*(Oxford: Wiley-Blackwell Publisher, 2012), 391.

33) John Milbank, *Theology and Social Theory*(Oxford: Blackwell Pub, 2006), 392.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에게 나타난 이원론이 모두 플라톤의 이원론을 이어받은 것 또한 아니다. 그는 기독교적 플라톤주의가 악을 독립된 실체로 여기거나 악이 그 자체로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반대했다. 또한 플라톤의 이원론에 나타난 이분법의 방식에서 선과 악의 문제는 존재와 비존재로 대비시키지 않는데 반해, 아우구스티누스는 모든 것은 신의 창조의 결과이며 그것이 실체인 한, 선한 것이기에 악의 존재는 부정했다. 그에게 있어 악은 선의 결여인 것이다.³⁵⁾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는 지상에서의 진정한 교회도 '하나님의 도성'에 속해있지만, 이 현재 교회 내에서는 지상의 도성에 속한 자들이 있다고 지적하는 등 이원론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이원론 안에서 논의를 펴고 있다.³⁶⁾

결국 아우구스티누스를 통해 발전된 플라톤의 이원론은 중세에 보편논쟁에 불을 피우는 연료역할을 하게 되었다. 보편자 물음은 플라톤을 거쳐 중세 철학자 보에티우스(Anicius Manlius Severinus Boethius, 480-524)에게 이어져 그 이후 기독교 전통에 영향을 미쳤다. 보편자가 존재하는지 아니면 단지 이름뿐이고 존재하는 것은 없는 것인지, 보편성과 유명론(唯名論)사이의 논쟁은 중세에 중요한 철학적 쟁점이다. 보편논쟁은 일자(一者)와 다자(多者) 사이의 관계가 핵심이다. 보편자가 경험계 내에서 특수자 속에 존재한다고 할 때 어려움이 발생한다. 보편자의 주거지를 경험계를 넘어 초월적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은 플라톤의 생각이었다. 보편자는 특수자 내지는 개별자의 생성과 소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안전한 세계에 분리된 채 존재한다. 이는 인식 가능한 근거로서 작용하고 아름다움과 선의 영원한 원천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보편논쟁에서 일부 학자들은 유명론을 주장하여 보편자를 부정하게 된다. 이들의 주장에 의하면 경험

34)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행복의 윤리학』(서울: 서광사, 1996), 156-7.

35) 위의 책, 120.

36) 한정애,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마틴 루터까지』(서울: 다산글방, 2002), 31-2.

가능한 세계에서 보편자의 존재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³⁷⁾ 만약 보편자라는 개념을 인정하게 된다면 초월적 세계 내지는 진정한 피안의 세계의 하나로서 경험세계보다 이전의 실재적인 존재를 수락해야 되는 형이상학적 부담감 때문에 보편자의 존재를 부정할 수 있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편자의 존재를 수락하고 그 보편자의 논쟁에서 보편자의 존재를 인정하는 전통은 기독교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보편자 인정은 세계에 대한 이분법적 시각이 강한 기독교의 세계관을 더욱 견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

IV. 기독교 전통에 나타난 이원론: 교회와 세상

1. 하나님의 보편적 은총과 자연

기독교 전통은 플라톤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와 이단 논쟁을 거치면서 어느 정도 이원론에서 자유로운 듯 보였다. 영지주의에서 주장하는 이원론을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부활의 정신을 이어받아 기독교 전통의 명분을 이어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일부 기독교 사상가들과 중세철학에서 플라톤의 이원론이 수용되고 아우구스티누스에게서도 이원론의 틀이 형성되었다. 그 후, 기독교 전통은 완전한 이원론과의 분리가 어려워졌고 현대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교회와 말씀 속에서 이원론의 뼈아픈 전통들의 잔재가 남아있다.

이러한 문제제기는 일찍이 도여베르트(Herman Dooyeweerd, 1894-1977)에 의해서도 제기된 바 있다. 도여베르트 또한 플라톤에 의해 체계화된 고대 그리스의 세계관을 ‘질료’와 ‘형상’으로 대비해 설명하고 있다. 도여베르트는 다음과 같이 플라톤의 이원론과 그에 따른 영향을 비판하

37) 남경희, 『플라톤』(서울: 아카넷, 2013), 343-5.

고 있다.

질료와 형상의 경계를 따라 그어지는 이원론적 구분선으로 말미암아 질료는 속된 것이요, 형상은 거룩한 것이 된다. 모든 플라톤적 사상에서는 이원론이 그 기초를 이루고 있는데, 이 이원론은 불변하는 관념들인 형상과 불안정적이고 가변적인 것들인 질료를 구분한다. 하늘은 선한 궁극적인 실체이고, 땅은 부수적으로 파생된 실체이다. 땅은 항상 하늘보다 열등한 것으로 이해되었고, 최악의 경우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창조 세계에 대해서는 악이 필연적이라고 보는 반면에, 불가시적인 이데아의 세계는 항상 인간의 도덕의 목표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이원론은 영혼에 대해 결국 불멸의 형상을 가진 것으로서 인식하였고, 육체는 삶의 고리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윤회에 종속되는 악한 것으로 치부되었다.³⁸⁾

도여베르트에 의하면 이 동기들이 회랍 사상의 중심적 근본 동기로서 회랍 사상을 처음부터 지배하였으며, 회랍의 형상 동기가 갖는 종교적 의미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에이도스(eidos)와 이데아(idea)라는 용어에 대한 고대 회랍적 의미를 지배했다는 것이다. 이 동기는 생명과 소멸의 가시적 세계와 대립하는 회랍적 형이상학적 존재관과, 인간 본성과 인간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헬라적 시각을 지지하는 기초를 이루었다.³⁹⁾

물론 질료와 형상을 분리하여 생각하는 플라톤의 사상이 올바른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여지가 있지만 이러한 사상이 기독교 신학에 영향을 미쳐왔음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도여베르트는 기독교 신학에 대한 플라톤 이원론의 영향을 중세와 근대로 연결해 설명하고 있다. 플라톤의

38) H. Dooyeweerd, *In the twilight of Western thought : studies in the pretended autonomy of philosophical thought*, 신국원·김기찬 역, 『서양 사상의 황혼에서』(서울: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3), 33.

39) 위의 책, 38-41.

이원론을 이어받은 중세 로마 가톨릭은 질료와 형상에 대비되는 ‘자연’과 ‘은총’의 대립을 상정한다. 아퀴나스는 일반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이어받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도어베르트³⁹의 관점에서 볼 때 아퀴나스가 자연적인 것과 초자연적인 것을 구분하는 것은 도리어 플라톤의 이원론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있다. 아퀴나스는 죄나 타락, 그리고 구원 같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초자연적인 영역에만 적용하고 제한함으로써 창조 세계가 분리된다는 점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근대 인본주의 철학에도 그대로 이어진다.⁴⁰

근대 철학은 로마 가톨릭이 자연과 은총으로 세상을 분리한 것처럼 ‘자연’과 ‘자유’를 구분하여 동일한 논의를 이끌어가고 있다. 근대에 들어 이러한 사상은 하나님의 은총을 부정하면서 그 자리에 인간의 자율성을 배치시킨다. 이를 통해, 근대인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교만한 의식 속에서 인간성 개발에만 몰두하게 된다. 이러한 노력은 얼마간 성과를 내게 되어 인간은 자연 현상을 지배함으로써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⁴¹ 이처럼 자연과 은총의 구분은 자연을 인간의 지배영역으로 간주하게 했다. 하나님의 은총은 자연의 영역으로 파고든다. 은총과 자연의 이분법적 구도 속에서의 설명은 하나님의 편재성과 보편적 은총⁴²을 부정하게 한다.

뿐만 아니라 자연과 은총의 구분을 통해 자연을 인간의 영역으로 간주하게 되면,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한 자연세계에 대한 부정을 초래하게 한다. 이후 자연세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를 합리화하고 자연을 인간의 독보적 영역으로 간주하게 되면서 자연을 ‘세속적’인 공간으로 여기는 결

40) 위의 책, 44.

41) 위의 책, 44.

42) 하나님은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태양의 따뜻함과 기쁨의 비를 허락하신다. 보편적 은총은 교회와 믿는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자연 내지는 세상 속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과를 낳았다.⁴³⁾

이처럼 플라톤의 이원론은 서양 사상 전반에 영향을 미친 만큼 기독교 교리에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해 왔다. 물론 역사적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물로 인정하고 변화시키려는 교회의 노력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영과 속을 구분하려는 본능적 태도가 교회 안에 뿌리 깊게 놓여 있는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다.

2. 한국교회의 이원론적 전통에 대한 비판과 기독교 윤리적 성찰

서양 기독교의 플라톤식 이원론적 세계관은 초기 한국교회에 그대로 재연되며, 오늘날 이러한 전통은 도리어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 교회는 성도뿐만 아니라 목회자들의 비윤리적 행태로 인해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초기 한국교회에서도 심각하게 문제제기 되던 것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나아지고 성숙하기보다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말하지만 실상은 한국사회에서 상당히 부패한 대상으로 지목되며 도리어 사회로부터 개혁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급변화하는 환경에서 윤리적 성찰뿐만 아니라 기존 전통에서 본 부정적인 윤리적 모습 또한 반성이 절실히 보인다. 현대인들은 삶의 윤리적 차원들을 어느 시대보다 예리하게 인식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직자들을 바라보는 윤리적 시각 또한 예사롭지 않다.⁴⁴⁾ 물론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개인 도덕성이나 사회적 영향 등 여러 가지로 논의

43) 자연을 세속적인 곳 또는 하나님의 도성이 아닌 세속적 도시로 간주하게 될 때, 세상과 교회 내지는 세속과 교회의 구분까지 이어진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기독교 윤리적 성찰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44) Stanely J. Grenz, *The moral quest : foundations of Christian ethics*, 신원하 역, 『기독교 윤리학의 흐름』(서울: IVP, 2004), 243.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이면에서 기독교인들의 문제를 부채질하고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사상적 기반은 이원론적 세계관이다. 한국 교회와 기독교 전통에서 나타난 이분법적 구도는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

첫째, 교회와 세상의 구분은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영향력을 간과하게 한다. 기독교 전통에서 세상은 '세속적' 공간으로 이해된다. 물론 이러한 생각이 야기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신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는 이원론적 세계관이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여타 지역의 교회보다 교회와 세상을 구분하는 이원론적 성향이 강했고, 그러한 토양에서 성장해 왔다. 상·하 구분이 뚜렷한 한국의 문화는 영혼과 육체, 교회와 세상을 둘로 나누는 성숙이원론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맞게끔 발전시켰다. 한국교회는 성숙이원론, 즉 영혼과 교회는 거룩하고 이와 구분된 육체와 세상은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생각을 발전시켜 왔다.

특히 세속(세상)과 교회의 구분은 교회를 떠난 세속의 도시에서의 삶을 타락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세속의 삶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 안에 있는 세상을 부정하는 것과도 같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뿐만 아니라 이 세속적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는 중요한 사건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완성을 위한 것이다. 세상의 완성은 곧 하나님 나라의 실현인 것이다. 한국교회는 세상이 부정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거하는 곳임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둘째, 성숙이원론을 통해 그리스인의 행위 또한 이분법적 구도로 설명된다. 이러한 구도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분하는 기독교 전통을

양산했다. 성숙이원론 속에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스럽게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이나 사회일은 사적인 일로 여기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직업이나 일상은 세상일로서 원래 하나님의 관심이 덜한 영역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직업과 일상을 아우르는 세상일은 악한 힘의 영역으로 보기도 했다. 그렇게 세상의 대표 격인 직장은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과 일체 상관없는 곳이 되었고 단지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정도로만 여겨졌다. 이러한 세속화는 직장을 속된 곳으로 보는 관점을 낳게 하였고, 이내 직장에서의 악한 행위는 불가항력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성도들 중에 상당히 독실한 신자조차도 교회 일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열심히 하지만, 직업에 관계된 것은 하나님께 맡기기 보다는 직장의 관례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마틴 루터(M. Luther)의 직업소명론을 보면 이러한 생각이 모순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소명이란 신의 부르심을 뜻하는 것으로 직업을 소명으로 여기는 것은 루터에서 시작된다. 소명으로서의 직업 관념은 모든 프로테스탄트의 중심교리이다. 도덕적으로 선한 행위를 하는 것과 더불어 자신의 직업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미덕으로 간주했다.⁴⁵⁾ 종교개혁의 또 다른 지도자인 칼뱅에 따르면, 구원을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신적 은총에 의해 예정된 것이라는 구원 예정설에 기초하여 성공적인 삶은 신자가 신의 섭리 안에서 쓰임을 받고 있으며, 구원의 여정에 동참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⁴⁶⁾ 하지만 기독교사를 보면 루터와 칼뱅의 소명론은 기독교인들의 삶 깊숙이 적용되지 못했다. 한국교회 또한 일상의 삶에서 거룩함을 제시하기에 앞서

45) Peter Singer, *A Companion to ethics*, 김성호 외 3인 역, 『응용윤리』(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5), 56-57.

46) 이태하, 『현대인의 직업윤리』(서울: 민지사, 2012), 38-39.

세속에 대한 가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함으로써, 초기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에서 벗어나고 있다.

셋째, 성숙이원론은 물질중심적인 사상의 토양이 된다. 한국 교회는 세속에 대한 비판을 하면서 동시에 세속에 대한 물질만능주의에 물드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러한 이중적 태도는 세상 사람들의 비판과 비난에 직면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할 한국교회는 도리어 부패의 온상이 되어 성도나 장로뿐만 아니라 목회자까지 사회 지도층을 능가하는 비윤리적 모습으로 각인되었고, 결국 교회를 향한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교회가 그동안 교인 수에 집착하여 교세에 치중하고 기독교 인구가 천만에 이른다는 점을 자랑하는 동안 우리나라의 부패지수는 전체 국가 중 43위로 10년 전보다 도리어 하락했다는 점⁴⁷⁾은 아이러니한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교회 외에 사회와 사적인 영역에서의 윤리성의 결여는 한국종교의 공통된 특징인 기복신앙과 맞물리면서 더욱더 힘을 발휘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받은 영향중에 가장 큰 것이 물질중심적인 사고일 것이다. 이처럼 기독교신앙과 물질주의적인 사고의 결합을 일반적으로 기복신앙이라고 부른다. 기복신앙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상에 깊이 뿌리 내린 권선징악 사상과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 그리고 급속한 경제개발 현상과 맞물리면서 하나님의 영적 축복을 물질적 축복으로 환원하는 과정 속에서 더욱 강화되었다. 성도들은 사회의 경제적 발전에 따라 물질적인 욕구가 강하게 되었는데, 목회자들은 이에 편승해 예수를 잘 믿지 않으면 물질적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인식을 키워왔다. 이러한 경향은 개인의 삶에만 머무

47) 우리나라의 부패지수(CPI)는 5.5점으로서 조사대상국 175개국 중 43위를 기록했다. 이는 OECD 국가 중 폴란드나 스페인보다 뒤진 결과이며, 아시아 주요 국가 중에서는 부탄이나 대만보다 못한 결과이다. 국제투명성기구, 「부패인식지수」 2014년 자료 참고.

르지 않고 교회도 물질적으로 부유한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라는 물질 지상주의적인 현상으로 흐르게 되었다. 이러다보니 교회의 재정으로 비리를 저지른 목회자가 비리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경제적 치적으로 인해 자신의 입지를 지키고 여전히 설교와 목회를 유지하는 현상도 벌어지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물질 중심적인 인식은 교회 구조에까지 영향을 미쳐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 아니거늘 교회에서 장로나 기타 중직을 맡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끌었다. 사회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성도는 교회 안에서도 위축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어 소외되는 현실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원론적 신앙관은 결국 세상에서의 윤리적인 삶을 가로 막고, 교회에서의 도덕적이고 순수한 신앙마저 타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한국교회는 아직까지도 교회에서 하는 것은 영적인 것이고 세상에서 하는 것은 육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팽배하다. 더욱 큰 문제는 교회가 세상에 나가 성경의 가치로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세상의 가치가 교회 내에 침투하여 세속화되는 상황이 일반적이라는 데 있다. 세상의 가치는 세상의 영역을 넘어 교회에까지 침투하는 데 반해 교회의 가치는 교회가 세상으로 침투하는 데 한계를 보임으로써 세상의 영역은 더욱 세속주의 세계관으로 오염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직장을 비롯한 사적인 영역은 세속화 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교회와 세상의 세속화는 한국 기독교의 타락을 불러왔다. 물론 나름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좋은 뜻으로 교회와 세상의 분리를 가르치고 실천한 것이기는 하지만 이원론의 영향으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 모습과 사회에서의 비윤리적인 행태는 더욱 가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냉정한 눈으로 바라볼 때, 몇몇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장이나 사회적 영역에서의 교회와 성경의 영향력은 미비하다는 점은 신학자나 목회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까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이다.

V. 나가는 말: 이원론을 넘어서

플라톤은 질료와 형상을 통해 세상을 설명하고자 했는데, 모든 플라톤적 사상은 기본적으로 이원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원론은 불변하는 관념들과 불안정적이고 가변적인 것들, 즉 질료와 형상을 구분한다. 그리고 결국 이원론은 영혼에 대해서는 불멸의 형상을 가졌다는 인식을 견고히 하고, 육체에 대해서는 삶의 고리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윤회에 종속되는 악한 것으로까지 치부하는 사상으로 이어졌다. 그의 이론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상으로 인해 인류의 사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후 질료는 저급한 것이고 형상은 고급스런 것이라는 인식을 낳게 되었다. 이는 다시 기독교로 이어져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독교 전통에서 하늘은 선한 궁극적인 실체이고, 땅은 부수적으로 파생된 실체로 설명하는 것도 근거 없는 믿음의 맥락에 있다. 기독교 전통에서 플라톤의 영향에 따라 땅은 하늘보다 더 열등한 것으로 이해되었다. 또한 가시적인 창조 세계는 악의 영역으로 보는 반면에, 불가시적인 이데아의 세계, 즉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영적 영역은 하나님의 은총과 도덕이 충만한 영역으로 여겨졌다. 플라톤이 형상과 질료에 대한 이원론적 대조를 한 것은 결국 기독교에서 영혼과 육체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도여베르트의 분석처럼, 플라톤의 이원론은 일반 세계관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쳐왔으며, 기독교적으로 볼 때 그 이론적 한계 또한 명확하다. 도여베르트는 플라톤이 주장한 바대로 가시적 세계와 불가시적 세계는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마찬가지로 육체와

영혼 또한 대립되지 않으며, 단지 상호보완적인 존재들일 뿐이다. 플라톤이 정립한 고대 그리스의 세계관은 잘못된 대립을 통해 결국 이후에 나타나는 분열적인 이원론의 모판일 뿐이다. 아퀴나스의 입장 또한 자연의 영역, 즉 창조 세계에 대한 죄의 영향력을 간과함으로써 결국 인간적인 것과 이성에 희망을 갖게 되었지만, 실제로 인간 실상은 너무나 악한 모습으로 드러났다. 근대 철학 또한 인간을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본 것일 뿐 세계대전 이후의 인류는 이러한 기대와는 어긋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플라톤의 이원론은 이론적으로는 상당한 설득력을 보이는 반면 실제로 적용되는 단계에서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⁴⁸⁾ 따라서 한국교회는 성경에 충실한 신앙관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윤리적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고찰해야 한다.

첫째, 성경의 일원론적 신앙관을 회복해야 한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일원론적인 세계관이다. 한 때는 완전했지만 타락의 길로 들어선 이 땅과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과정이 성경의 핵심 내용이다. 신앙이란 단순히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가 아니며, 성경적 세계관을 수용하고 그 안에서 전인격적 회복과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성경의 주재일 뿐 아니라 칼빈주의 개혁신학에서도 강조하는 주요 쟁점이다.

둘째, 기독교 윤리의 올바른 정립이 절실하다. 교회와 세속의 분리로 인해 한국 교회는 세상의 법과 윤리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나타났다. 성서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가르친다. 내 이웃은 기독교 전통에서의 구성원을 넘어 이방인과 믿지 않는 자의

48) H. Dooyeweerd, *In the twilight of Western thought : studies in the pretended autonomy of philosophical thought*, 43.

범위의 확장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사랑과 범위가 가진 함의는 단지 교회 내에서만이 아닌 세상으로의 확장이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의미는 곧 세상에서의 기독교 윤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의 윤리와 세상의 윤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의식과 더불어 선(善)과 하나님의 사랑은 시공간을 초월한 편재성의 사랑의 실천이라는 믿음이 요구된다.

이 시대의 영적 전쟁은 사상전(思想戰)으로 규정할 수 있다. 현대에는 수많은 세계관과 사상들이 설득력 있는 논리와 합리성을 앞세워 성경과 상반되는 가치대로 살도록 성도들을 유도한다. 따라서 성경을 단편적으로 이는 것을 넘어 체계적인 세계관으로 정립되어 있지 못한 성도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아가기 쉽다. 실제로 주위를 둘러보면, 진심어린 예배를 드리며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지만 세계관·가치관이 세상의 그것에 지배되어 무기력하게 비윤리적인 양식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이 있다.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과 개인 영성이 충만하다 할지라도 일상의 삶에서 성경적 가치가 아닌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상,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진정한 영적 전쟁은 살아 숨 쉬는 이 땅에서 그분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경험하느나의 문제이다. 이제 삶에 밀착되어 있는 이원론적 신앙관을 배격내고 진정 성경적인 일원론적 신앙관을 수용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김태길. 『윤리학』. 서울: 박영사, 2004.
- 남경희. 『플라톤』. 서울: 아카넷, 2013.
- 문시영. 『아우구스티누스와 덕 윤리』. 서울: 북코리아, 2014.
- _____. 『아우구스티누스와 행복의 윤리학』. 서광사: 1996.
- 송혜경. 『영지주의자들의 성서』. 서울: 한남성서연구소, 2014.
- 이정우. 『영혼론 입문』. 서울: 도서출판 살림, 2003.
- 이태하. 『현대인의 직업윤리』. 서울: 민지사, 2012.
- 한정애. 『아구스티누스에서 마틴 루터까지』. 서울: 다산글방, 2002.
- Albert, Karl. *Griechische Religion und platonische Philosophie*. 이강서 역. 『플라톤 철학과 헬라스 종교』. 서울: 아카넷, 2011.
- _____. *Uber Platons begriff der philosophie*. 임성철 역. 『플라톤의 철학개념』.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2.
- Dooyeweerd, H. *In the twilight of Western thought : studies in the pretended autonomy of philosophical thought*. 『서양 사상의 황혼에서』, 신국원 · 김기찬 역, 서울: 크리스찬다이제스트, 2003.
- Field, G. C. *The philosophy of Plato*. 양문흠 역. 『플라톤의 철학』. 서울: 서광사, 1986.
- Hoeller, Stephan A. *Gnosticism : new light on the ancient tradition of inner knowing*. 이재길 역. 『이것이 영지주의다』. 서울: 산티출판사, 2006.
- Ross, W. D. *Plato's theory of ideas*. 김진성 역. 『플라톤의 이데아론』. 서울: 누멘, 2011.
- Schulz, Joachim. *Das problem der materie in platons*. 이정직 역. 『플라톤의 물질 문제』. 서울: 서광사, 2000.
- Singer, Peter. *A Companion to ethics*. 김성호 외 3인 역. 『응용윤리』. 서울: 철학과 현실사, 2005.
- Stanely J. Grenz, *The moral quest : foundations of Christian ethics*. 신원하 역. 『기독교 윤리학의 흐름』. 서울: IVP, 2004.

Stewart, John Alexander, *Plato's doctrine of ideas*. 양태범 역. 『미적경험과 플라톤의 이데아론』. 서울: 누멘, 2011.

Stumpf, Samuel Enoch · Fieser, James, *Socrates to Sartre and beyond : a history of philosophy*. 이광래 역.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모더니즘까지』. 서울: 열린책들, 2011.

Szlezak, Thomas Alexander, *Platon lesen*. 임성철 역. 『플라톤 읽기』.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부, 2001.

Arrington, R. L. *Western Ethics: An Historical Introduction*. Massachusetts: Blackwell Publishers, 1998.

Bloomfield, P. *Moral Realit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Hartmann, N. *Moral Value*, New Jersey: Transaction Publisher, 2004.

Hinman, L. M. *Ethics: A Pluralistic Approach to Moral Theory*. Wadsworth: Thomson, 2003.

Irwin, T. *Plato's Eth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Kraut, R. *The Cambridge Companion to Plato*.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Milbank, J. *Theology and Social Theory*. MA: Blackwell Publishing, 2005.

Norman, R. *The Moral Philosopher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Plato, *The republic*. edited by G. R. F. Ferrari; translated by Tom Griffith.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0.

Vessey, M. *A Companion to Augustine*. Oxford: Wiley-Blackwell Publisher, 2012.

Vlastos, G. *Platonic Studies*. New York: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1.

논문투고일: 2016년 06월 30일

심사개시일: 2016년 07월 08일

게재확정일: 2016년 08월 05일

• 국 문 초 록 •

플라톤에게 있어 실재는 가시적인 현상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상위에 놓여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존재는 형이상학적인 가치에서 비롯되었고, 그가 제시한 이데아는 모든 만물에 형상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였다. 플라톤에게서 이데아, 곧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한 우월성은 영혼론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그는 영혼을 가사적(可死的)인 것과 불사의 부분으로 나누는데 가사적인 것은 신체를 움직이게 하는 자연적 원리로, 불사의 부분은 인간에게 고유한 차원으로 설명한다. 플라톤은 영혼의 능력들에 관해 설명하면서 불사의 부분은 이성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가사의 부분은 감정과 욕망을 담당한다고 설명하면서,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는 이원론을 펼친다. 이원론은 후에 아우구스티누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는 물질세계와 완전히 분리된 비물질 세계에 대한 개념을 상정하면서 인간이 신과 비물질적인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정신적 감각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보에티우스의 유명론 논쟁도 결국 이러한 이원론 논의의 연장선상에 서있던 것이다. 이처럼 플라톤의 이론은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양상으로 인해 인류의 사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기독교로 이어지면서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라는 근거 없는 믿음을 초래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독교 전통에서 하늘은 선한 궁극적인 실체이고, 땅은 부수적으로 파생된 실체로 설명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 있다. 또한 가시적인 창조 세계는 악의 영역으로 보는 반면에 불가시적인 이데아의 세계, 즉 기독교인들이 생각하는 영적 영역은 하나님의 은총과 도덕이 충만한 영역으로 여겨졌다. 형상과 질료에 대한 이원론적 대조는 결국 영혼과 육체에까지 잘못된 이해를 갖도록 유도했던 것이다. 플라톤의 이원론적 아이디어를 통해 기독교는 영혼과 육체, 교회와 세상을 둘로 나누는 성숙이원론을 발전시켰다. 성숙이원론은 영혼과 교회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으로 격상시키고 육체와 세상은 원래 부정적인 것으로 격하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세상의 영역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역에서도 비윤리적인 양상을 심화시켰다.

주제어: 플라톤, 형이상학, 이원론, 질료·형상, 기독교 윤리, 교회·세상
